

“청년들 삶의 여정에 교회가 동반자 돼야”

인천교구와 살레시오회 한국관구, ‘청소년을 위한 영적 동반’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인천교구와 살레시오회 한국관구는 15일 인천교구청 대강당에서 ‘청소년을 위한 영적 동반’을 주제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을 주제로 10월 3일 열린 세계주교대의원 회주교 시노드 제15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신앙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번 시노드 주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삶의 여정에 교회가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황청은 교회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종재자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기조강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폴란드 크라쿠프 세계청년대회에서 “세상이 바뀌었어요?”라는 질문에 한 청년이 “네”라고 응답한 사례를 소개했다. 청 주교는 “젊은이들이고

민하는 방향성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라고 응답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며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젊은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보기 좋은 세상을 향해 갈 것이고, 교회 역시 젊은이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느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와 교회의 여정 : 청소년 사목의 쇄신을 위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초대(로사), 살라 신부,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 사목신과 교수 △청소년 성소 사목, 식별과 영적 동반 - 젊은이들을 동반하는 우리의 헌신을 쇄신하고 강화하기(피비오 아타르)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청소년사목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제와 교수, 주일학교 교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경험 사례를 나눴다.

전문지 기자 eunz@cpbc.co.kr

묵상시와 그림



거룩한 땅

—신앙의 선조 순교자들을 위하여—

동방에 빛나는 아침의 나라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이룩한 신앙의 타전
이 땅은 거룩한 하늘의 땅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누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칼입니까? 아닙니다
감옥입니까? 아닙니다
모진 고문과 역경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죽음이나 압박입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세상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성전
하느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깊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오 성 대견인 안드레아 사제와
성 경함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여
깊이깊이 잊나소서
영원히 이 땅을 지켜주소서

시와 그림-김용혜(요한)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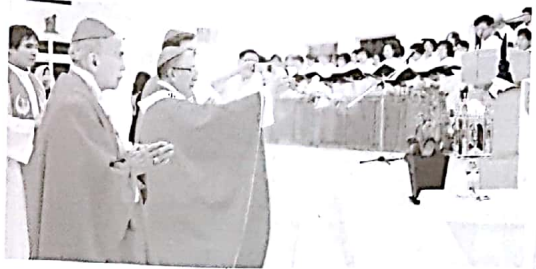
광주대교구 성 십자가 현양... 성체 신심 되새겨

광주대교구 성 십자가 현양 축일 미사가 14일 광주가톨릭 평성교육원성당에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주례로 열리고 있다. (사진)

광주대교구는 이날 미사에서 십자가 보목(樺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 나무)을 현양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체 신심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십자가 보목은 과달루페 외방선교회 초대 총장 에스칼라네 주교가 1963년 교황청으로부터 한국 천주교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선물 받은 것으로 올해 2월 원해불 신부가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

아기면서 광주대교구에 들어왔다. 교구는 복도에 건립 중인 성 미카엘 대성전에 십자가를 안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번 제 처음으로 공개 전시, 현양했다.

한편, 광주대교구는 15일 영광순교자 기념성당 광장에서 순교자현양대회를 열었다. 김희중 대주교가 집전한 정일미사에는 육현진 총대리 주교를 비롯해 사제와 수도자, 신자 등 600여 명이 참가했다. 김 대주교는 강론에서 “순교자란 하늘의 가치와 진리를 위해 현실을 뛰어넘어 자신을 던진 사람들”이라며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뜻을 따르



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증거하는 삶이 곧 순교자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신자들은 “평신도 화해를 맺는 우리의 다짐을 다 함께 당혹해 선조 신앙인들의

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야 이 시대의 복음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정재혁 명예기자

마산교구 진주지구 2지역 정찬문 묘소에서 현양 미사 봉헌금은 사봉성지 기금으로

봉헌금은 사봉성지 기금으로

마산교구 진주지구 2지역(가좌·극산·문산·상평·장재·해대동)은 14일 북자 정찬문(안나리오) 순교자 묘소가 있는 사봉성지에서 순교자 현양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는 진주지구 2지역 사제와 신자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장신 신부(하대동본당 주임)가 주례했다. 이날 봉헌한 현양금은 전액 사봉성지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익준 기자 ace@cpbc.co.kr

부산교구 순교자 치명 150주년 순교자 현양 음악회 성황



부산교구 순교자 치명 150주년 순교자 현양 음악회에 출연한 교구 10개 합창단이 순교자 찬가를 합창하고 있다.

1868년 부산 수영 장대에서 순교한 복자 이정식(요한) 등 순교자 8위를 위한 부산교구 순교자 치명 150주년 순교자 현양 음악회가 10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열렸다.

오류대순교자성지(당당 전수홍 신부)가 주최하고, 부산가톨릭음악협회(지도 임석수 신부)가 주관한 이날 음악회에는 부산가톨릭합창단을 비롯한 교구 내 10개 합창단이 출연, 순교자 현양곡을 연주했다. 음악회는 관객 1000여 명이 순교자 찬가를 함께 노래하면서 막을 내렸다.

부산교구장 서리 삼삼성 주교는 “음악회를 통해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성태 명예기자

예수수도회 한국관구장에 장영선 수녀 임명



예수수도회 장영선(릴레가르 영선, 릴레가르 영선, 63, 사간) 수녀가 최근 로마 총임으로부터 제

7대 한국관구장에 임명됐다. 장 수녀는 1982년 입회해 1991년 종신서원을 하고, 한국관구 감사위원을 역임했다. 관구장 취임식은 10월 1일 오후 5시 30분 대전 대흥로 예수수도회 본원 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리걸레 기자 teatokos@cpbc.co.kr

예수수도회는 메리 워드(Mary Ward, 1585-1645)가 1609년 성 이나시오의 영성에 따라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영국에서 창립한 최초의 여성 활동 수도회이다. 1964년 한국에 진출해 대전 성모초·충고를 설립 운영하면서 여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500명, 한국관구 238명이 23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리걸레 기자 teatokos@cpbc.co.kr



「가톨릭대학교 강엘리사벳 연구기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가톨릭대학교 강엘리사벳 연구기금’은 가톨릭인 강엘리사벳(엘리사벳) 여사의 후원에 의해 2001년 조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가톨릭 신학과 철학 및 관련 인문학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톨릭 사상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가톨릭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인간 존중의 사상을 널리 보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가톨릭 학자들의 신학과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관련 연구 지원
2. 가톨릭 신앙과 교회의 발전에 필요한 외국 서적들의 번역 사업 지원
3. 가톨릭 신학과 철학 관련 학회들의 학회 활동 지원

지원 분야

1 분야 가톨릭 신학과 철학 및 관련 인문학 분야

- 1) 연구 주제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정
- 2)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가톨릭 사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연구 형태

- 1) 개인연구 혹은 2인 이상의 공동연구 모두 가능
- 2) 개인번역 혹은 2인 이상의 공동번역 모두 가능
- 3) 학술대회 및 학술연구모임

연구내역

- 1) 연-논문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매년 2000만원까지).
- 2) 저서나 번역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매년 2500만원까지).
- 3) 국제학술대회는 200만원, 국제학술대회는 300만원 정액으로 지원한다(매년 1500만원까지).

연구기간 : 1년

신청

1 신청방법 연구자(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책임자) 개인이 신청

2 신청대상

가톨릭 신학과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관련 논문 또는 저술을 집필하려는 가톨릭 신자이거나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을 하고자 하는 가톨릭 학부생(연구논문이나 저서번역의 경우)은 지원자에게 고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결과 제출 후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음. 보다 많은 연구단체에 기록을 하기 위해 학술대회의 경우 동일회비는 1년에 한 번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사문구 누락’ 등으로 연구결과 보고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지원 신청이 제한됨.

3 신청서류 1) 연구비 신청서 또는 학술대회 지원신청서 1부

2) 연구계획서 1부 (엄격한 심사를 위해선 저술 및 논문의 연구 계획서는 서 용지 3매 이상으로 연구 [지출, 번역 포함]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연구 배경;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참고 문헌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비록 저서의 경우 저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문적인 수준을 심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의 경우 주요내용 번역본 3쪽 이상을 첨부바람)

3) 연구자의 연구업적목록(공동연구자 포함) 1부

(서류 미비 및 기재사항번역서의 완전한 사자사항 등의 부실은 검점 요인이 될 수 있음)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4 신청기간 2018년 9월 17일 ~ 2018년 10월 31일

(신청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신청과제는 심사에서 제외됨.)

5 제출처

1466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철학전공 내
‘가톨릭대학교 강엘리사벳 연구기금’ 담당자 Tel) 02-2164-4560

기타

-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 신청 서류는 당 기금이 배분한 양식에 따라 작성함. (양식은 가톨릭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www.catholic.ac.kr의 공지사항 ‘가톨릭대학교 강엘리사벳 연구기금’ 지원사업 안내에서 다운로드 사용 가능함)
- 3) 심사 절차 및 내용, 선정 결과와 관련된 문의는 사절함.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